

제주시의 계급구조*

정 대 연**

目 次

- I. 연구목적
- II. 사회계급의 개념
- III. 연구방법
- IV. 자료의 분석과 해석
 - 1. 응답자들의 특성
 - 2. 모순적 계급위치의 구조
 - 3. 착취계급의 구조
 - 4. 서비스계급의 구조
 - 5. 계급구조들간의 비교
- IV. 요약 및 결론

I. 연구목적

사회적 불평등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정대연, 1991). 선천적인 것을 물리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후천적인 것은 다시 도덕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불평등을 논의할 때는 물리적 불평등과 도덕적 불평등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치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정치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간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가

* 본 연구는 1991년 필자와 신행철 교수 및 김석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in South Korean Urban Areas'의 연구설계를 사용하여 제주시의 계급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 인문대학 사회학과(Dept. of Sociology,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운데 특히 개인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가 곧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계급(social class)이다. 사회학에서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으로서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사회계급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등급화 도식(gradational conception)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관계 도식(social relational conception)이다. 전자는 사회계급을 수입, 직업, 교육 등의 층화 안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위치라는 계층모델(stratification model)이다. 반면 후자는 사회계급을 생산의 사회체계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가족의 위치라는 계급모델(class model)이다.

한국사회의 계층 및 계급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어나(예컨대 이상백, 1934:1954), 1960년대에 와서야 점차 활발해졌다. 계급과 계층의 개념규정을 위한 논의라든지(예컨대 김채운, 1964) 실질적인 양적, 질적 연구 등이 이 때 상당한 축적을 보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연구들은 주로 계층모델의 입장에서 수행되었다(김채운, 1984). 계급모델에 의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관한 분석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난다(예컨대 김영모, 1979). 특히 이론적 맥락에서의 계급모델의 구성은 80년대의 몇몇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Koo와 Hong(1980), Koo(1982), 홍두승(1983), 김진균(1984), 서관모(1987) 등이 그들이다. 이외에 계급모델과 계층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예컨대 한상진, 198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계급 모델에 기초하여 제주시의 사회계급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시의 사회적 불평등의 한 유형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제주사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 사회계급에 관한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시효가 될 것이다.

II. 사회계급의 개념

사회계급은 사회학에서 매우 역사가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K. Marx, M. Weber, E. Durkheim 등 고전 사회학자들은 전산업사회 내지 봉건사회로부터 산업 및 자본주의사회로의 구조적 이행기의 사회적 불평등을 진단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계급을 취급하였다. 물론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비중을 두고 계급의 개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계급은 자본주의 발전과의 연관성보다는 다차원적 성층이론을 제시하는 계층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예컨대 Biau and Duncan, 1976). 60년대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은 계급을 사회적 불평등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맑스주의적 계급소멸론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해 더 이상 지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마저 보인다(예컨대 Westergaard, 1965).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런 경향은 다시 급속히 변화한다. 즉 맑스주의 도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 경향은 특히 유럽의 신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다(예컨대 Poulantzas, 1973; Carchedi, 1977). 고

전 사회학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조직화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맑스주의적 분석틀의 마련이 이들이 내세운 주된 목적이었다. 이들은 계층론자들의 지위서열적 개념화에 반대함은 물론이고 재산 소유관계보다 시장상황을 준거로 계급을 규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시장 상황에 준거를 두는 입장은 곧 신베버주의적 계급론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 역시 계층론자들과는 구별되는 개념화를 시도한다(예컨대 Giddens, 1981; Parkin, 1979, Goldthorpe, 1980).

그러나 신베버주의와 신맑스주의는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맑스주의가 특징화시켰던 노동가치론과 경제적 결정론의 형이상학적 껍질을 베버주의가 벗겨냈기 때문이다(Kerstholt, 1989). 그리고 베버주의자인 Goldthorpe(1982)의 연구는 비맑스주의적 전제를 통한 맑스주의의 주요 교의들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베버주의와 맑스주의간의 이러한 교류의 경향은 역으로 신맑스주의자들의 이론화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그 좋은 예로 Wright(1978; 1979; 1985)를 들 수 있다. 그는 초기에는 맑스주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베버주의적이었다.

본 연구는 신베버주의와 신맑스주의간의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일단 양자가 모두 사회적 관계의 개념에 입각한 계급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두 진영 각각으로부터 계급의 개념과 분석들이 다채롭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신맑스주의에서는 Wright를, 그리고 신베버주의에서는 Goldthorpe를 선정하고, 이들이 제공한 모델에 기초하여 제주시의 계급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Wright는 두 개의 계급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모순적 계급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착취계급(exploitation class)의 모델이다. 반면 Goldthorpe의 계급모델은 서비스계급(service class)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Wright와 Goldthorpe의 계급모델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 490명을 표본으로 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표본의 수는 표집오차 $\pm 5\%$ 에서 신뢰도 수준 90%이다. 남자는 조사 당시 상시고용자로 한정하였고, 여자는 적어도 주당 15시간 이상의 정규적인 시간제 고용자이거나 상시고용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제주시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여자이므로, 우선 전체 490명의 표본 가운데 여자와 남자의 구성을 3대 1로 하였다. 제주시의 19개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에서 조사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한 사람만 면접하였고, 전체표본은 연령별 및 성별 할당표집으로 구성시켰다. 현지조사는 1990년 10월 사회학과 3학년 학생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IV. 자료의 분석과 해석

1. 응답자들의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490명의 성,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및 직업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표본 추출시 할당한 그대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남자이고, 여자는 그 나머지만 약 3분의 1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전체의 39.4%이고, 30대가 28.8%, 40대가 16.7%, 그리고 50대 이상이 15.1%이다. 교육수준은 국민학교 학력 이하가 4.3%이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이 52.4%로서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약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학력이 43.2%이다.

월수입은 40만원 미만인 23.5%이고, 40~69만원이 31.8%, 70~99만원이 22.9%,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21.8%이다. 직업별로는 육체노동자가 3.75%이고, 사무/판매/서비스 종사자가 18.2%, 준전문직이 10.6%, 관리직이 55.5%, 그리고 전문직이 12.0%이다.

<표 1>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323	65.9
	여 자	167	43.1
연 령	29세 이하	193	39.4
	30~39세	141	28.8
	40~49세	82	16.7
	50세 이상	74	15.1
교 육 수 준	국민학교 이하	21	4.3
	중학교	50	10.2
	고등학교	207	42.2
	2년제 전문대학	58	11.8
	4년제 대학 이상	154	31.4
월 수 입	40만원 미만	115	23.5
	40~69만원	156	31.8
	70~99만원	112	22.9
	100만원 이상	107	21.8
직 업	육체노동	18	3.7
	사무/판매/서비스	89	18.2
	준전문직	52	10.6
	관리직	272	55.5
	전문직	59	12.0
합	계	490	100.0

2. 모순적 계급위치의 구조

Wright가 제시하고 있는 모순적 계급위치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닌 차원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계급이 차별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Wright, 1979). Wright(1978: 1985)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기에는 부르주아, 신탁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라는 세 계급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차원들 곧, 소유권과 직접 생산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타인의 노동에 대한 권위의 행사라는 세 차원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노동과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지만, 프로레타리아는 무산자이고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권위 역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노동자의 탈속련화, 소유와 통제의 분리, 관료적 위계의 발달이 병행되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세 차원들은 수렴되지 못한다. 이 비수렴화(non-convergence)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차원들이 차별적인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세 형태의 모순적 계급위치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위치는 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노동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관리자 및 감독자(manager and supervisor), ② 노동에 대해 단지 최소한의 권위만을 갖는 소규모 고용인(small employer), ③ 그리고 노동자와는 달리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반자율적 피고용인(semi-autonomous employee)들을 지칭한다. 결국 이 모델에 의하면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신탁부르주아, 소규모고용인, 관리자 및 감독자, 반자율적 피고용인이라는 여섯 가지의 계급적 위치로 특징화할 수 있다.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 대한 조작화는 먼저 자영업과 고용인은 자영, 소유권, 주식 소유지분의 비율(35% 이상)을 기준으로 피고용인과 구별시켰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세 계급의 구분은 피고용인의 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신탁부르주아는 자기 자신 이외에 피고용인 없거나 1인인 경우로, 소규모 고용인은 2인에서 9인까지로 하고, 피고용인의 수가 10인 이상일 때는 부르주아로 하였다. 생산수단 비소유자들의 구분은 의사결정, 자율성, 제재력, 타인에 대한 권위, 그리고 관리업무 등의 변인들과 관련시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인들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지닌 경우에는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고, 피고용인 가운데 관리 및 감독권이 없으나 자신의 노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한 이들은 반자율적 노동자, 자율성이 없거나 낮을 때는 프로레타리아로 구분지었다.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 기초하면 제주시의 계급구조는 <표 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르주아가 1.6%, 신탁부르주아는 28.3%, 프로레타리아는 21.2%인데, 모순적 계급위치에 속하는 관리자 및 감독자, 소규모고용인 및 반자율적 노동자는 각각 13.9%, 7.1%, 28.0%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제주시에서 모순적 계급위치에 있는 사람은 49.0%가 된다.

이러한 계급구조를 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신탁부르주아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자는 관리자 및 감독자에서, 여자는 프로레타리에서 현저하게 많은 분포를 보여 그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다른 반자율적 노동자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현저하게 많다. 반면 남자들은 52.7%가 모순적 계급위치에 속해 여자의 41.9%와 확실한 대조가 된다.

〈표 2.1〉 모순적 계급위치의 계급구조

계 급	성		연 령				계 (490)
	남자 (323)	여자 (167)	20대 (193)	30대 (141)	40대 (82)	50대이상 (74)	
브르조아	2.2%	0.6%	0.5%	1.4%	1.2%	5.4%	1.6%
소규모고용인	9.9	1.8	2.1	6.4	13.4	14.9	7.1
쁘티브르조아	27.9	28.7	14.0	30.5	40.2	47.3	28.2
관리자 및 감독자	18.0	6.0	7.8	17.0	14.6	23.0	13.9
반자율적 노동자	24.8	34.1	39.9	27.7	22.0	4.1	28.0
프로레타리아	17.3	28.7	35.8	17.0	8.5	5.4	2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33.39$		$X^2=125.67$				
	df=5		df=15				
	P=0.000		P=0.000				

연령별로는 우선 연령이 많을수록 브르조아, 뿌티브르조아, 소규모고용인, 관리자 및 감독자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자율적 노동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순적 계급위치 또한 연령별로 49.8%, 51.1%, 50.0% 및 42.0%를 보임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20대는 절대다수(75.7%)가 반자율적 노동자 또는 프로레타리아이다. 그러나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은 그 비율이 각각 44.7%, 30.5%, 9.5%를 보임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반자율적 노동자와 프로레타리아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각 계급별 평균 연령과 평균 교육연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모순적 계급위치의 평균 연령과 교육연수

계	급	평균연령	평균교육연수
브르조아		44.3세	15.3년
소규모고용인		43.3	12.6
뿌티브르조아		40.1	11.5
관리자 및 감독자		39.1	14.1
반자율적 노동자		30.4	13.5
프로레타리아		28.7	13.2

〈표 2.2〉에 의하면 브르쵸아들은 평균 44.3세로서 가장 나이가 많고, 다음으로 소규모고용인, 싹티브르쵸아, 관리자 및 감독자 등의 순서로 나이가 많다. 프롤레타리아들은 평균 28.7세로써 나이가 가장 어리다.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브르쵸아들의 공식 교육은 평균 15.3년으로써 교육수준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14.1년이고, 싹티브르쵸아들의 평균 교육연수(11.5년)가 가장 낮다.

3. 착취계급의 구조

Wright의 착취계급 모델은 위의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 대한 자기비판의 과정에서 그 자신 스스로 새로 제안한 것이다. 그는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의 문제점과 함께 두 모델이 서로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Wright, 1985: 51-57).

첫째, 특정의 계급관계가 이중적 또는 이질적 위치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모순적 계급위치라는 개념 자체가 맑스주의의 테제로 볼 때 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차원이라기보다 특정 작업환경의 결과일 수도 있는 자율성의 개념이 모호한 채로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서 사용되었다. 셋째,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이 지배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착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때 착취의 개념은 J. Roemer의 이론에서 발전시켜 사용하겠다.

Roemer은 자산(assets)의 불평등한 배분에 근거하여 착취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right는 노동력은 생산수단과 의사결정의 권력, 숙련기술의 불평등 배분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각각 생산수단 자산, 조직자산(organizational assets), 자격자산(credential assets)에 의한 착취에 상응한다고 본다. 예컨대 자격자산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한계산출(marginal product)과 관련된 잉여를 점유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정의 자격증이 특정 숙련기술의 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 고용주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 현상이다. 자격증 소지자들의 임금상승은 그 숙련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할 때보다 높여 놓는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산출의 가격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가격은 한계산출의 가치 이상의 것 곧, 자격증 비소지자들의 한계산출의 가격 이상의 것이 된다. 이러한 두 간격간의 차이가 자격자산의 소유자들의 점유하는 부분이고, 자격증 비소지자에 대한 착취라는 것이다.

조직은 권위의 위계를 통해서 통제되는 자산이다(Wright, 1985: 80). 이 조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령 노동과정에 대한 의사결정—로 관리자나 관료들이 사회적으로 산출된 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취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조직자산이 불균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생산수단의 비소유자인 관리자나 관료들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일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의 양식은 국가 관료제의 사회 또는 국가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Wright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에 근거한 착취의 형태들을 개념화하면서 12개의 계급들로 구성된 계급모델을 제안한다. 그 가운데 브르죠아나 소규모고용인, 썬티브르죠아의 세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며, 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나머지 9개 계급은 조직자산의 통제와 자격자산의 소유정도에 따라 구분짓는다.

이러한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의 조작화의 일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착취 개념에 대한 조작화와 각 계급에의 할당도 Wright의 조작화 과정에 준해서 이루어졌다(Wright, 1985: 148-157). 예컨대 조직자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감독, 공식적 위계의 수준들을 고려하였고, 자격자산은 교육 수준과 직업에 근거하였다.

〈표 3.1〉 착취계급의 계급구조

계 급	성		연 령				계 (490)
	남자 (323)	여자 (167)	20대 (193)	30대 (141)	40대 (82)	50대이상 (74)	
브르죠아	2.2%	0.6%	0.5%	1.4%	1.2%	5.4%	1.6%
소규모고용인	9.9	1.8	2.1	6.4	13.4	14.9	7.1
썬티브르죠아	27.9	28.7	14.0	30.5	40.2	47.3	28.2
전문 관리자	3.4	0.6	0.5	2.1	2.4	8.1	2.4
전문 감독자	1.5	1.8	1.6	2.8	0.0	1.4	1.6
전문 노동자	6.5	4.2	5.7	9.9	1.2	2.7	5.7
숙련 관리자	7.1	1.8	2.1	5.7	9.8	8.1	5.3
숙련 감독자	3.7	1.2	3.1	3.5	2.4	1.2	2.9
숙련 노동자	21.1	28.7	39.9	16.3	15.9	3.7	23.7
비숙련 관리자	1.5	0.0	0.0	1.4	0.0	3.7	1.0
비숙련 감독자	1.6	0.6	0.5	1.4	0.0	0.0	0.6
프로레타리아	14.6	29.9	30.0	18.4	13.4	2.7	1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43.27$		$\chi^2 = 160.39$				
	df= 11		df= 33				
	P=0.000		P=0.000				

착취계급 모델에 기초한 제주시의 계급구조를 분석하면 〈표 3.1〉과 같다. 이 표에서도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브르죠아, 소규모고용인, 썬티브르죠아의 셋은 앞서 제시된 〈표 2.1〉의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서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숙련 노동자가 23.7%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숙련 화이트칼라와 비숙련 블루칼라 노동자들인 프로레타리아(19.8%)가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계급을 합하면 43.5%인데 이는 숙련,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들을 합쳐 관례적으로 노동자계급이라 통칭했던 인구층이 된다.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 계급분류에서 Wright가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Goldthorpe(1982)의 서

비스 계급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비육체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구별하고, 후자만을 노동자계급이라고 부르고 있다.

〈표 3.1〉에 의하면 이른바 중간계급(김석준, 1992)으로는 두 분류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전문관리자(2.4%), 전문감독자(1.6%)와 관리자적 책무는 없지만 분명히 전문직 종사자인 전문노동자(5.7%)이다. 이들은 모두 9.7%이다. 다른 하나는 숙련관리자(5.3%), 숙련감독자(2.9%), 비숙련관리자(1.0%) 및 비숙련감독자(0.6%)이다. 이들은 모두 9.8%이다. 따라서 제주시의 중간계급은 모두 19.5%가 되는 셈이다. 〈표 3.1〉의 분포를 성 및 연령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남녀 관계없이 절대다수가 숙련 노동자 또는 프로레타리아이다.

한편 착취계급 모델에 의한 계급별 평균 연령과 교육연수를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착취계급의 평균 연령과 교육연수

계	급	평균연령	평균교육연수
	브르쥬아	44.3세	15.3년
	소규모고용인	43.3	12.6
	쁘티브르쥬아	40.1	11.5
	전문 관리자	45.3	15.8
	전문 감독자	32.4	15.5
	전문 노동자	32.6	15.4
	숙련 관리자	40.2	14.0
	숙련 감독자	34.6	13.0
	숙련 노동자	29.5	14.6
	비숙련 관리자	44.8	10.8
	비숙련 감독자	34.3	11.0
	프로레타리아	29.0	11.4

〈표 3.2〉에 의하면 전문관리자들이 평균 45.3세로써 나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숙련 관리자, 브르쥬아, 소규모고용인 등의 순서로 나이가 많고, 프로레타리아가 평균 29.0세로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 평균 교육연수는 전문직(전문 관리자, 전문 감독자, 전문 노동자) 종사자들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비숙련직(비숙련 관리자, 비숙련 감독자) 종사자들이 평균 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서비스계급의 구조

베버주의자들은 계급구조는 형태보다는 그것을 구성해 가는 과정과 동학-사회이동의 유형, 사회적 폐쇄, 계급 구조화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Goldthorpe의 연구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의 계급모델은 현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동의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던

서 제시된다(Goldthorpe, 1980; 1982).

Goldthorpe (1982, 168-173)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전문직과 관리직 피고용인들은 서비스계급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다른 계급과 구별짓고자 한다. 그는 이 서비스계급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조직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정교화된 권위의 분화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면서 등장했다고 본다. 이 서비스계급은 다른 피고용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상황과 작업상황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계급들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으로 봉사하고, 조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신뢰를 담보해냄으로서 부여받게 되는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며, 보다 많은 승진기회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음은 물론이고, 작업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권위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계급은 최근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탓으로 다른 계급들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계급의 개념을 포함한 Goldthorpe의 계급모델은 순전히 서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Hope와 Goldthorpe (1974)의 직업의 사회적 회구도 (social desirability)에 관한 척도의 작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계급모델에 관한 이론적 바탕을 M. Weber에 두고, 사회적 회구도보다는 오히려 공유된 객관적 작업과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직업을 7개의 계급으로 분류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계급 I (상층 서비스계급) : 자영이건 고용이건 높은 등급의 전문직, 정부와 대규모 산업체의 높은 등급의 관리자를 포함.

계급 II (하층 서비스계급) : 낮은 등급의 전문직과 높은 등급의 기술직, 낮은 등급의 관리자, 소규모 기업체나 조직의 관리자와 비육체 노동자의 감독을 포함.

계급 III (일상적 화이트칼라) : 정부나 기업체에서 비관리직의 사무직 또는 판매직 종사자들.

계급 IV (자영 노동자) : 자영이거나 10명 이내의 피고용인을 두지만 전문직 종사자가 없는 자영인.

계급 V (감독자) : 어느 정도 육체노동의 성격을 띤 낮은 수준의 기술직과 육체노동자의 감독관.

계급 VI (숙련 육체노동자) : 모든 산업분야의 숙련된 육체노동자.

계급 VII (비숙련 육체노동자) : 반숙련 또는 미숙련의 모든 육체노동자와 농업노동자.

Goldthorpe는 위와 같은 자신의 계급모델에 관한 조작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pe-Goldthorpe척도(Goldthorpe and Hope, 1974)의 직업범주들을 참고하면서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계급규정에 충실하도록 조작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에는 일상적 화이트칼라가 28.2%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층 서비스계급, 숙련 육체노동자, 비숙련 육체노동자의 순서로 많다. 반면 상층 서비스계급과 감독자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구성비가 가장 낮다.

이러한 분포는 성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층 및

〈표 4.1〉 서비스계급의 계급구조

계 급	성		연 령				계 (490)
	남자 (323)	여자 (167)	20대 (193)	30대 (141)	40대 (82)	50대이상 (74)	
상층 서비스계급	2.2%	0.6%	0.5%	1.4%	1.2%	5.4%	1.6%
하층 서비스계급	9.9	1.8	2.1	6.4	13.4	14.9	7.1
일상적 화이트칼라	27.9	28.7	14.0	30.5	40.2	47.3	28.2
자영 노동자	3.4	0.6	0.5	2.1	2.4	8.1	2.4
감독자	1.5	1.8	1.6	2.8	0.0	1.4	1.6
숙련 육체노동자	6.5	4.2	5.7	9.9	1.2	2.7	5.7
비숙련 육체노동자	7.1	1.8	2.1	5.7	9.8	8.1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3.08$		$\chi^2=154.57$				
	df=6		df=18				
	P=0.000		P=0.000				

하층의 서비스계급, 자영 노동자, 숙련 육체노동자가 현저히 많다. 반면 일상적 화이트칼라와 감독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간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상층 및 하층 서비스계급, 일상적 화이트칼라, 자영 노동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숙련 육체노동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숙련 육체노동자는 40대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이고, 20대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감독자는 30대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이다.

다시 각 서비스계급의 평균 연령과 평균 교육연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서비스계급의 평균 연령과 교육연수

계 급	평균연령	평균교육연수
상층 서비스계급	40.1세	15.3년
하층 서비스계급	35.6	14.6
일상적 화이트칼라	28.0	13.3
자영 노동자	37.8	12.3
감독자	33.9	13.6
숙련 육체노동자	34.1	11.4
비숙련 육체노동자	47.4	10.2

〈표 4.2〉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비숙련 육체노동자들은 평균 47.4세로써 다른 계급에 비해 나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층 서비스계급, 자영 노동자, 하층 서비스계급, 숙련 육체노동자,

감독자의 순서로 나이가 많다. 반면 일상적·화이트칼라는 평균 28.0세로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 평균 교육연수는 상층 서비스계급이 15.3년으로써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하층 서비스계급이다. 일상적 화이트칼라와 감독자는 각각 13.3년과 13.6년으로써 평균 교육연수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1.4년과 10.2년으로써 다른 계급에 비해 가장 낮다.

5. 계급구조들간의 비교

이상에서 3개의 계급모델에 기초할 때 제주시의 계급구조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모델들이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현상으로써 제주시의 계급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곧 서로 상이한 개념적 틀에 기초한 계급구조들간의 비교분석이다. 이것을 위해 <표 2.1>, <표 3.1> 및 <표 4.1>를 각각 교차분석하여 유관계수(contingency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계급구조들간의 유관계수

	모순적 계급위치	착취 계급	서비스 계급
모순적 계급위치	1.000	0.895*	0.699*
착취계급		1.000	0.777*
서비스 계급			1.000

* : P=0.000

<표 5>에 의하면 3개의 계급모델간에는 계급분류의 일치도가 매우 높고, 특히 Wright의 두 모델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급분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계수의 값이 0.895로써 가장 크다. Goldthorpe의 모델은 Wright의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보다는 착취계급 모델과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곧 3개의 계급모델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제주시의 사회계급의 기본적인구조는 밝혀질수 있음을 뜻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현상으로써 제주시의 계급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위해 사회학에서 계급에 관한 논쟁의 두 줄기인 신맑스주의와 신베버주의의 틀을 함께 사용하여 제주도 계급구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맑스주의의 틀로서는 Wright의 모순적 계급위치의 모델과 착취계급 모델을 사용하였고, 신베버주의의 틀로서는 Goldthorpe의 서비스계급 모델을 사용하였다.

Wright의 모순적 계급위치의 모델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소위 말하는 자본가인 부르주아는 1.6

%이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프로레타리아는 21.2%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35.3%(소규모고용인과 브티브르조아)이고, 나머지 41.9%는 소위 말하는 중간계급으로서 일상적 화이트칼라의 범주에 속하는 관리자, 감독자 또는 반자율적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계급구조는 Wright의 착취계급 모델과 Goldthorpe의 서비스계급 모델과도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주시의 계급구조는 성과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어느 계급에 속하게 되느냐의 문제는 성, 연령 및 교육수준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다.

계급구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모델들 이외에 다른 모델에 의한 것들도 물론 유용할 것이다. 현재 사회학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고찰도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 논의한 내용들은 단지 예비적이고, 그런 뜻에서 대략적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參 考 文 獻

- 김석준, 1992, 「한국 중간층의 계급위치와 계급성격」,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영모, 1979,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 23집,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1982, pp. 305~331에 재수록.
- 김진균, 1984,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의 변동연구(1)』, 서울:민중사.
- 김채운, 1964, 「사회계급의 개념도식」, 『서울대학교 논문집』, 17집, pp. 107~143
- , 1984, 「한국사회계층론 40년」, 『한국사회학』, 18집(여름호), pp. 71~89
- 서관모, 1987,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백, 1934, 「서열 차대의 연원에 관하여」, 『한국문화사 논고』, 서울:울유문화사.
- , 1954, 「서열금고시말」, 『동방학지』.
- 정대연, 1991, 「한국사회의 분배적 불평등」, 한국사회학회(편) 『현대 한국사회 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pp. 18~45
- 한상진, 1984,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그 차이점에 관하여」, 『사상과 정책』, 봄호, pp. 19~32
- 홍두승, 1983, 「한국사회의 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범문사, pp. 169~213
- Blau, P. M. and O. D. Duncan, 1976,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Carchedi, G., 1977,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olbjornsen, T. and A. L. Kalleberg, 1987, "Spillover, Standardization and

- Stratification : Earnings De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hicago, (August, 1987)
- Giddens, A., 1981,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 Hutchinson.
- Goldthorpe, J. H.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 Clarendon Press.
- , 1982, "On the Service Class, Its Formation and Future," in A. Giddens and G. Mackenzie (eds.),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 Essays in Honour of Ilya Neustad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2~185.
- Goldthorpe, J. H. and K. Hope, 1974, *The Social Grading of Occupations*, Oxford : Clarendon Press.
- Jeong, D. Y., H. C. Shin and S. J. Kim, 1991,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in South Korean Urban Areas,"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22집, pp.891~936.
- Kerstholt, F., 1989, "Between Rational Choice and Durkheimian Solidarity." in S. Clegg (ed.), *Organizational Theory and Class Analysis : New Issues and New Approaches*, Berlin : De Gruyter, pp.113~135.
- Kerstholt, F. and L. R. Luijkx, 1984, "Class, Status and Income Inequality," *Netherlands Journal of Sociology*, Vol.20, pp.134~149.
- Koo, H. G., 1982,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in Y. S. Chang, T. W. Kwon and P. J. Donaldson (eds.), *Society in Transi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oo, H. G. and D. S. Hong, 1980,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5, pp.610~626.
- Pakin, F., 1979, *Marxism and Class Theory : A Bourgeois Critique*, London : Tavistock.
- Poulantzas, N.,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London : New Left Books.
- Westergaard, J. H., 1965, "The Withering Away of Class : A Contemporary Myth," in P. Anderson and R. Blackburn (eds.), *Towards Socialism*, London : Fontana, pp.77~113.
- Winn, S. V. Z., 1984, "Social Class and Income Returns to Education in Sweden :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Vol.62, pp.1026~1034.
- Wright, O. E.,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 New Left Books.
- , 1979,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 1985, *Classes*, London : New Left Books.
- Wright, O. E. and L. Perrone, 1977, "Marxist Class Categories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 pp.32~35.

Summary

Class Structure in Cheju City

Dai-Yeun Jeong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lass structure in Cheju City, using three dominant class models. The three were Wright's Contradictory Class Location, Wright's Exploitation Class, and Goldthorpe's Service Class.

490 respondents were randomly sampled in Cheju City, with use of a quota sampling by sex. The data revealed that each class model constitutes different distributive patterning of classes. However, there existed a high congruence among the three model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urgeoisie are 1.6%, proletariat 21.2%, small employers including petty-bourgeoisie 35.3%, while the remaining 41.9% are, the so-called, new middle classes. Another finding was that gender, age and the length of formal schooling year are significant factors determining class position.